

 금융위원회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2017.12.5(화) 09:00 이후	배포	2017.12.4(월)
책임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성은(02-2100-1730)	담당자	심지원 사무관 (02-2100-1724)	

제 목 : 제5차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17.12.5~7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주관의 워크숍을 개최
-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 제도이행상황과 사례 중심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방안(FinTech and Risk Based Approach)에 대해 논의

1 워크숍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17.12.5~7일, KEB 하나은행에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AP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 * '13년부터 후발국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및 역내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해옴
- 이에 앞서 12.4일(월)에는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초청하여 우리의 FIU 제도·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공
- * 방글라데시,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대만, 바누아투,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 워크숍 개요 》

- 기간/장소 : 2017.12.5(화)~7(목), 하나생명 본사(舊 외환은행 본점)
- 참석자 (150여명)
 - (참가국) APG 및 EAG(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소속 회원국
 -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
 - (관계부처·민간기관) 외교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국내외 금융핀테크 업권 다수 기관

2 주요 내용

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요지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12.5일 09:10)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규제·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 ML/TF* 위험이 높은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되, 위험도가 낮고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한 영역은 해당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FATF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강조
 - *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 ** '12년 개정된 FATF 권고기준에 도입된 개념으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조치를 의미(ML/TF 고위험 부문에 규제자원 집중, 저위험 부문에는 완화된 정책 도입)
 - 또한 규제준수 및 감독 수행 업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 국경을 초월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의 특성을 감안, 참석자들에게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된 규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당부

나. APG 워크숍 주요 의제

- 참석자들은 금융포용 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과 이를 악용한 ML/TF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각국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
-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Regulatory Sandbox)
- 점차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및 당국의 규제·감독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

- <별첨> 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국영문)
 ②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국영문)

2017 APG 서울 워크숍

開 會 辭

(국 문)

2017. 12. 5. (화) 09:10~09:25

하나생명 본사(舊 외환은행 본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13년 이래 5번째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APG* 사무국 관계자분들과,
워크숍을 위해 발표해 주실 발표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아-태 지역 자금세탁방지 그룹. '98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현재 한국 포함 41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

APG 회원국, EAG* 회원국에서
금번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EAG(Eurasian Group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 유라시아지역 9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

그리고 국내에서 참석해주신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핀테크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핀테크 산업의 등장과 위험성

내외 귀빈 여러분!

핀테크는 이제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으로까지
그 활용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인터넷 원고료를
가상통화로 송금을 받게 되어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핀테크는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e-wallet)을 통해 은닉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Ⅲ. 금융규제 준수비용 상승

IT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 기준과 각국의 제재는 훨씬 강화되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자금세탁범죄 자체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89년 G7합의로 설립되어 OECD 회원국 중심 41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
수십억불의 벌금까지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III(은행), 솔벤시 II(보험사) 등
건전성 강화 규제를 준수해야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준수(*compliance*)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비용이 매년 40%이상 증가하는 추세(엑센츄어 컨설팅)

이러한 규제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신규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신기술의 등장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핀테크 기업과 같은 시장 신규참여자들은

준법감시 능력이 부족하여

규제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Ⅳ. 균형있는 금융규제 환경 조성

참석자 여러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규제·감독과 법규준수(*Compliance*)측면에서

지향해야할 점을

한국 정부의 경험과 함께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

우선,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절실합니다.

영국·호주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tolerance*)을 가지는 규제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도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금년 10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규제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자금세탁 고위험에 규제역량 집중

두 번째로,
규제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도와 기술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규제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FIU)은
상품이나 서비스별, 거래의 각 단계별로
자금세탁에 취약한 정도를 파악하여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기술발전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등
‘위험기반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12년 개정된 FATF 신 국제기준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조치를 의미(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부문에
규제자원·조치를 집중하되, 저위험 부문에는 완화된 정책 도입 등)

한국의 금융회사들과 KoFIU는 '14년부터
FATF 신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고위험분야에 방지역량을 집중하는
“금융회사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고위험 분야에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위험관리 사각지대를 조기에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최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다단계 사기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 규제준수·감독수행업무에 신기술 활용

세 번째로 규제준수 및 감독수행 업무에도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준수 및 감독수행 업무에는 점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규제이행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FATF, BIS(바젤위원회)*, IMF 등 국제기구는, 금융회사가 규제준수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의 혁신기술을 접목(RegTech**)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BIS는 '효과적인 리스크 데이터 수집과 리스크 보고 원칙'을 발표하여 글로벌 은행은 리스크 데이터 능력을 제고하고, IT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구

**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금융회사는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감독·규제를 위해 IT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통칭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확인(CDD)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예, 관세당국,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이 개인 정보 장부를 공유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고객확인을 더욱 효율화함

금융감독당국인 KoFIU도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18년부터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신속히 대응하여 자금세탁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AML/CFT 국제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 FATF는 국제적 사범공조나 FIU 간 정보공유를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도 국가라는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 (예) FATF는 가상화폐 거래 구조상 고객과 거래 기록 등이 각자 다른 주체나 국가의 관할에 속함으로 인해 통일된 규제가 어려움을 지적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핀테크 업권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정책을 각국이 서로 통일되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AML/CFT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가 FATF 권고기준을 그 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국이 상당 부분 유사한 규제 체계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 워크숍은 아·태지역 국가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IV.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설립자인 빌게이츠는 "우리는 대체로 2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지만, 10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금융산업과 규제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규제·감독체계 위에서 player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혁신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가 협력해 나간다면 어떠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태지역 각지에서 모인 民·官 여러분이 “자금세탁이 없는 깨끗한 사회,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각국의 서로 다른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AML/CFT 규제에서 중요한 국제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워크숍을 위해 서울을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開 會 辭

(영 문)

2017. 12. 5. (화) 09:10~09:25

하나생명 본사(舊 외환은행 본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 Greeting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Kim Yongbeom**, Vic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t is my great pleasure to deliver an opening remark at the **5th APG Workshop in Seoul**.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APG Secretariat** for its successful preparation of this event, and to the **presenter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workshop.

Let me take this moment to welcome everyone here from **APG and EAG member states**.

I also thank the **representatives of each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FinTech industry in Korea** for joining us today.

II. The Rise of Fintech Industry and Its Risks

Distinguished guests,

Fintech is **not just a new business model**.

It has evolved into another means
to **financial inclusion**.

For example, **in Afghanistan**,
women used to be denied bank accounts.

But today, they get paid for their online writings
through digital currencies,
that enhances their **economic independence**.

However, FinTech has some distinctive features
such as **anonymity, non-face-to-face**
and **automatized transactions**
that could do harm to our society.

It poses new risks to us
like cyber-attacks.

Cryptocurrencies and e-wallets
are often exploited by criminals

to **hide their proceeds of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online gambling and drug trafficking.

That makes **preventing and tracing**
money laundering
more difficult than ever before.

III. Rising Compliance Costs of Financial Regulations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regulations
of each state have **become stronger**.

The **FAT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nti-money laundering,
calls for heavy punishment
on money laundering offences.

The U.S. financial authorities
impose billions of dollars in fines
to financial institutions **violating AML regul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face rising costs of complianc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y are required to comply with **strengthened prudential regulations** such as **Basel III and Solvency II**.

They are also asked to build **internal controls for anti-money laundering**.

The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challenges both incumbents and new entrants in the financial sector.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being challenged to **keep up with financial innovation**.

New players like FinTech businesses **are struggling with regulatory compliance** due to their **limited compliance capacity**.

IV. Striking Right Balance in Financial Regulation

Distinguished guests,

In the face of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hat policy approach should we tak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Korea's experience** with you and **make some suggestions**, in terms of **regulation, supervision and compliance**.

1. Flexibility in Regulation and Supervision

First, to foster an innovative industry such as FinTech, we need a more **flexible approach** in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Like the 'regulatory sandbox' that the UK and Australia have already introduced, we need a **regulatory framework with tolerance**.

It would **allow innovators** to test their **new services in the real market** and **start-ups to grow with the market**.

In October,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Financial Regulatory Test Bed'**.

That allows FinTech businesses to **entrust their innovative services to financial institutions** to test within the range of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We are also drafting a **new bill** titled **"Special Act to Foster Financial Innovation"** and planning to **launch a test bed for blockchain technology** as well.

2. Concentrating Regulatory Capacity on High ML Risk Areas

Second, As we are simultaneously faced with **rising regulatory costs and newly emerging threat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we need to **allocate our regulatory resources more efficiently,** balancing between riskiness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 this contex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FIU need to adopt the **'Risk Based Approach'** more actively.

That would allow a **temporary regulatory exemption** to financial services **deemed less vulnerable to money laundering;** and at the same time, **in need of technological advances.**

Since 2014, KoFIU and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ing the **'Financial Institution Money Laundering Risk Assessment System'** to **concentrate prevention efforts to high-risk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FATF standards.

Under the system,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concentrate their monitoring resources to **high-risk areas** so that they can **remove blind spots** in the early stage.

To do our part,
the Korean government proactively **counter crimes abusing new technologies**.

We tightened our crackdown on **drug dealing and pyramid fraud schemes using cryptocurrencies**; and began to impose **AML obligations on small remitters of foreign currencies**.

3. Using New Technologies in Compliance and Supervision Work

Third, we need to **embrace technological innovation** into our **compliance and supervisory works**.

Those works are now **in greater demand of cost and time**. **The volume of data** we need to process is also **rapidly increasing**.

Regulatory Technology, or 'RegTech' is now high on the agenda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FATF, BIS, and IMF.

That would serve as a means to **save compliance cos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integrate technological innovation into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s**.

In the near future,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Tech businesses will be able to identify **suspicious money laundering transactions** by **using AI and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will enable them to conduct **Customer Due Diligence (CDD)** in a **more efficient way**.

KoFIU, as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will also **further adopt new technologies**.

For instance, we will build an **information analysis system using AI**, starting from 2018.

That would help us process the **increasing number of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in a **more sophisticated and systematic manner**.

With the new system,
we will be able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new types of money laundering crimes.

4.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ML/CFT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don't recognize country borders.

That is why the FATF recommends,
as a principal matter,
mutual legal assist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among FIUs.**

FinTech and its markets
are also **borderless** across the world.

That's why we need to **work together**
to proactively counter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exploiting FinTech technologies.

It would **not be easy**
for countries across the world
to reach a regulatory consensus on FinTech.

However, **AML/CFT regimes** in most of countries
are based on the same FATF standards.

That would make it **a lot easier**
to build a harmonized regulatory framework
on this front.

I wish **this workshop** can be a venue
for building **closer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Asia-Pacific states.

IV. Closing

Distinguished guests,

Bill Gates, the founder of Microsoft,
once said:

"We always **overestimate the change**
that will occur **in the next two years**
and **underestimate the change**
that will occur **in the next ten.**"

It is **hard to predict** what the **financial industry and its regulations** would look like in the future.

However, **preparing for the future** is **not something impossible**.

To respond to any change to come, we need a more **flexible and efficient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a level playing field for players to compete each other;

and **strong partnership** between innovators and regulators.

Today, representatives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gathered under the common goal of **'clean society without money laundering, and safe world free of terrorism'**.

I hope this workshop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change our experiences and ideas,** and to **benchmark each other.**

Through today's event, I wish we could **build a moment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ML/CFT regulation.**

I would like to thank again all of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별첨 2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설립목적** (※ 전세계 9개 FATF 스타일 지역기구 중 하나)
 - 역내 국가들의 FATF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촉진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제정 및 제도도입, FIU설립 등을 촉진
- 회원국**
 - 97.2월 APG 설립 합의, 98.3부터 활동개시 (사무국: 호주)
 - 우리나라는 '98.3월 정회원 가입
 - 정회원 : 41개국, 옵서버 : 8개국, 28개 국제기구

정회원 (41개국)	옵서버 (8개 국가, 28개 국제기구)
(북아시아 7)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고	북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러시아, 키리바시, 투발루
(동남아 11)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ADB/OECD 부패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ARIN-AP), 동남아국가연합(ASEAN), 카리브자금세탁방지기구(CFATF), 영연방(Commonwealth), 동남아프리카자금세탁방지그룹(ESAAMLG), 에그몽, 유라시아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그룹(EAG), FATF, 국제금융감독그룹(GIFCS), 중앙아프리카
(남아시아8)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	자금세탁방지기구(GABAC), 서아프리카자금세탁방지기구(GIABA), 라틴아메리카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IMF, 인터폴, 중동및북아프리카금융조치전담기구(MENAFATF), 유럽회의자금세탁방지전문가기구(MONEYVAL), 오세아니아관세기구(OCO), 태평양금융기술 지원 센터(PFTAC), 태평양군도경찰(PICP), 태평양군도포럼 사무국(PIFS), 태평양군도법무관(PILON), UN, 유엔 마약 범죄 사무실(UNODC), 세계은행, 국제관세기구(WCO)
(기 타 4)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평양섬11) 피지, 마셜군도, 쿡아일랜드, 사모아, 바누아투, 니우, 팔라우, 통가,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 밑줄 국가가 FATF 회원국(10개국)	

- 주요활동 : 아태 지역 국가에 대한 FATF의 지역기구 역할 수행**
 - **AML/CFT 국제규범**(40개 권고사항) **이행평가·감독**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